LEADING
Weekly
Market Insight

2013년 10월 7일

미국 정부 폐쇄와 이머징 마켓 투자심리 개선

미국 정부 부분폐쇄 주식시장 부정적 영향 제한적

- **미국 정부 부분 폐쇄 불구, 글로벌 주식시장 선진국 중심 소폭 하락**

지난 주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이 10 월 1 일 회계연도 개시를 앞두고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996 년 이후 17 년 만에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나, 과거 연방 정부 폐쇄가 장기화된 사례가 많지 않고, 정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경험에 따라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도 미국과 유로존 선진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은 약세를 보인 반면, 이태리, 그리스 등 남유럽과 개도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간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의 주된 원인은 이미 법제화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실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공화당과 이에 대해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대응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빚어낸 결과물로 결국 지난 9월 FOMC 위원들이 양적완화 축소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도 양측의 강경한 대립의 결과 현재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전망된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예산안과 부채한도 상향조정 관련 협의 동시 진행 전망

미국 정부가 1주일 폐쇄될 경우 미국 GDP 에는 0.1%P 의 부정적 효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당 간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이 수차례 천명한 미국 부채한도 소진시점도 10/17로 임박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 까지는 예산안과 부채한도 협상이 동시에 타결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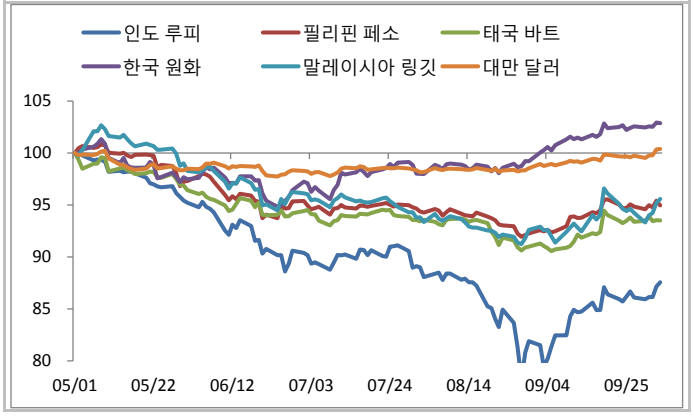
양적완화 축소 시기 지연 불가피 –이머징시장 투자심리에 긍정적

하지만, 연방 정부 폐쇄와 관련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결국 Fed 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는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은 10/.3 무디스가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투자가능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머징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머징 통화들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이와 함께 중국 비제조업 PMI 지수 호조 등 경제지표 개선을 반영하여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여 MSCI EM 지수가 0.8% 상승하였다.

3분기 기업실적에 대한 관심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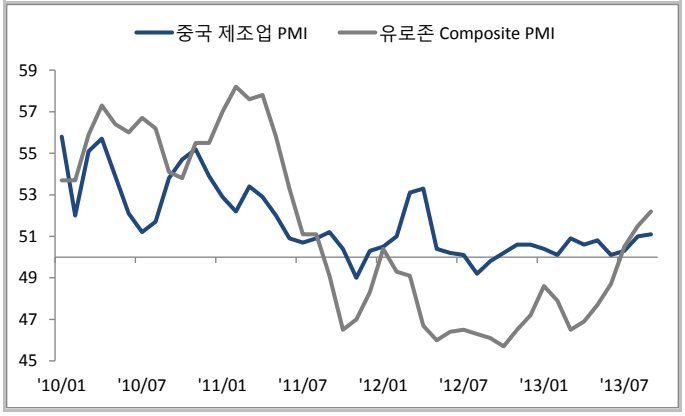
금주에도 미국 정부 폐쇄와 부채한도 관련한 양당간의 협상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은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3분기 실적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업실적의 추이에 주식시장은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2분기 이후 개선되고 있는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 지표 개선 추이를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실적이 기대된다. 따라서, 미국 정치권의 혼란으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로 나타날 수 있는 조정 국면은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hibit 1아시아 이머징 환율 추이(2013.05.01=10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 중국 제조업 PMI, 유로존 Composite PMI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지역별주식시장전망

- **미국**

지난 주 민주, 공화 양당간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예산안 최종 협상 시안인 9 월 30 일을 넘기고, 미 연방 정부가 잠정 폐쇄 상태에 돌입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이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도 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미국 정부폐쇄와 부채한도 협상이 시장을 억눌렀으나, 과거 정부폐쇄 이후 시장 반등 사례 및 2011 년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 이후에도 결국 시장이 반등했던 학습 효과로 주식시장의 하락 폭은 제한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번 주에도 미국의 재정 측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폐쇄가 예상과 달리 장기화 되면서 부채 한도와 함께 협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10 월 17 일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시한까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에 따른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따라 지난 주 월간 고용 지표를 비롯 자동차 판매, 공장주문 등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못했고 이번 주에도 무역수지, 기업재고, 소매판매 등 지표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 현황 파악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 발표가 제한되는 만큼 증시는 양당간의 협상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정부 디폴트로 이어지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 일에는 9 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9 월 양적 완화 유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경제적, 정치적 배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QE 축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럽**

지난 주 남유럽 증시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감 완화로 크게 상승한 반면 선진 유럽 증시는 미국의 정치적 공방 지속으로 재정 측면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유로존의 경제 지표 호조, ECB 금리 동결과 부양기조 유지,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감 완화 등의 호재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주에도 유로존의 경제 지표 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치적 이슈와 더불어 11일 발표 예정인 중국의 수출입 지표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을 저점으로 중국의 대유럽 수출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 경기의 연착륙이 유럽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 경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지표로는 8일 독일의 무역수지, 공장주문, 10일 산업생산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표 개선을 통해 독일 경제 회복세를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9일 발표될 영국의 8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조성돼 있다.

- **아시아**

지난 6 월말 이후 각종 경기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PMI 에 이어 비제조업 PMI 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 분기 경기회복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유동성 우려 해소도 증시 수급 면에서 긍정적이다. 금주 주식시장이 개장하면 11 월에 열릴 18 차 3 중 전회 테마주가 상해자유무역지대 테마주를 이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금주에는 9 월 무역수지, 신규 위안화 대출 등 의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

금주 한국증시는 미정부 재정한도 협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전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1 조로 발표된 이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G2/유럽 경제지표가 점차 호조를 보임에 따라 수출 관련주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지표 또한 개선세를 보이고 중국 연휴에 따른 한국 여행객 방문증가로 소비주들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예상되나 9 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치며 저물가/저성장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한은의 경기전망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1. 미주

➢ 경제

지난 주 미국은 양당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미 정부의 업무가 일부 정지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경제 지표인 고용지표는 발표되지 않았고, 10월 1일 이후에는 나머지 민간 기관의 지표 발표만 진행되었다. 하지만 10월 1일 이전 발표된 미국 지표를 통해 제조업 회복세를 확인했다.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9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55.7을 기록해 4개월래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미국의 전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 8월 55.7에서 9월에는 56.2로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미국 경제의 12%를 구성하는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ADP 민간고용이 16만6000명으로 시장 전망치 18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더해 미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아 고용 지표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천건 증가한 30만8000건을 기록하며 시장전망치인 31만3000건을 밑돈 것은 긍정적이었다.

➢ 주식

지난 주 미국 증시는 미 연방 정부 업무의 부분적인 셧다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대형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구체적으로 다우 지수는 1.2% 하락, S&P500 지수 0.1%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7% 상승했다. 섹터별로 안전 자산인 금, 은이 하락했지만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비철금속이 상승하면서 S&P500의 소재 섹터가 0.8% 상승했다. 전 주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일부 유입된 흐름이었다. 한편 미국 양당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S&P500 헬스케어 섹터는 0.9% 상승하며 10개 섹터 내 최고 수익률을 자랑했다. 경기 소비재 역시 견조한 수익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부진한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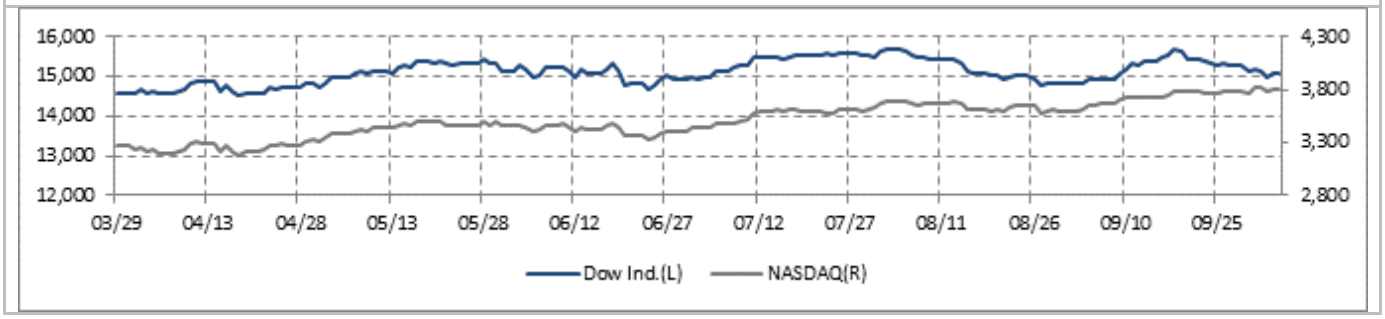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2014 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의회가 팽팽한 접전을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국채가격은 하락했고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 보합세를 보였다. 미국의 재정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Exhibit 3 주간 경제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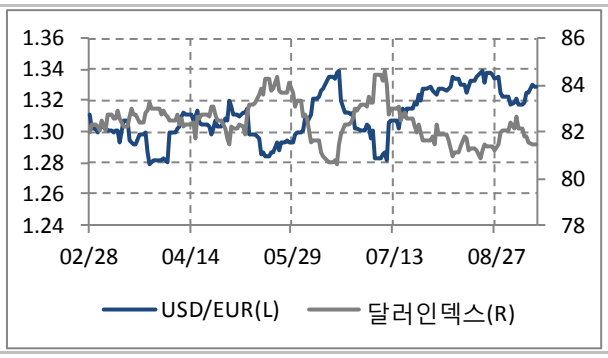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09-30	미국	시카고 구매자협회		54.00	55.70	53.00	1.70	2.70
발표	2013-09-30	미국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5.50	12.80	5.00	7.30	7.80
발표	2013-10-01	미국	Markit 미국 PMI 최종		53.10	52.80	52.80	-0.30	0.00
발표	2013-10-01	미국	ISM 제조업지수		55.00	56.20	55.70	1.20	0.50
발표	2013-10-02	미국	ADP취업자 변동	(천)	180.00	166.00	159.00	-14.00	7.00
발표	2013-10-02	미국	ISM 뉴욕			53.60	60.50		-6.90
발표	2013-10-03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315.00	308.00	307.00	-7.00	1.00
발표	2013-10-03	미국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천)	2,805.00	2,925.00	2,821.00	120.00	104.00
예정	2013-10-07	미국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천)	180.00		169.00		
예정	2013-10-07	미국	실업률	(%)	7.30		7.30		
예정	2013-10-07	미국	제조업임금변동	(천)	5.00		14.00		
예정	2013-10-08	미국	소비자신용지수	($십억)	12.00		10.44		
예정	2013-10-08	미국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4.00		94.00		
예정	2013-10-08	미국	무역수지	($십억)	-39.50		-39.10		
예정	2013-10-08	미국	JOLTs 신규 고용				3,689.00		
예정	2013-10-09	미국	도매 재고 전월비	(%)	0.30		0.10		
예정	2013-10-10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0.00	0.00	0.00	0.00	0.00
예정	2013-10-10	미국	월간 재정수지		65.00				
예정	2013-10-11	미국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	0.00		0.20		
예정	2013-10-11	미국	미시간대 기대지수		76.00		77.50		
예정	2013-10-11	미국	기업재고	(%)	0.30		0.40		

Exhibit 4 미국 주요 지수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 달러 인덱스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6 미국 10 년 채권 수익률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7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C World	383.8	-0.3	3.7	7.1	13.0
다우종합	15,072.6	-1.2	0.9	-0.4	15.0
NASDAQ	3,807.8	0.7	4.1	9.4	26.1
S&P 500	1,690.5	-0.1	2.1	3.6	18.5
S&P 500 에너지	609.8	-0.0	1.1	3.4	14.4
S&P 500 소재	268.3	0.8	3.7	9.9	12.9
S&P 500 산업재	399.6	-0.9	3.3	6.5	21.5
S&P 500 경기소비재	483.5	0.2	4.1	5.6	28.6
S&P 500 필수소비재	410.5	-1.0	0.7	-0.6	13.8
S&P 500 헬스케어	593.1	0.9	2.3	6.2	28.1
S&P 500 금융	270.3	-0.0	1.5	1.2	22.2
S&P 500 IT	521.8	-0.1	1.9	4.5	12.5
S&P 500 통신서비스	149.4	-0.5	0.9	-6.7	2.3
S&P 500 유틸리티	188.8	-0.7	1.9	0.7	6.3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8 미국 주요 종목 등락률

종목명	종가	수익률(%)			
	(USD)	(1 주)	(1 개월)	(3 개월)	(YTD)
PRICELINE.COM INC	1,062.2	4.7	11.5	25.6	71.2
BAIDU	159.0	3.4	18.2	78.2	58.5
COMCAST	45.6	2.0	6.0	10.9	22.2
MICROSOFT CORP	33.9	1.8	8.6	-0.4	26.8
CELGENE CORP	157.3	1.7	7.7	30.1	100.4
UNITEDHEALTH	73.0	1.4	-0.5	11.4	34.6
VODAFONE	35.5	1.3	9.4	23.5	40.8
UNITED TECHNOLOGIES CORP	104.3	-4.7	0.9	10.1	27.1
CHEVRON CORP	118.1	-3.7	-2.3	-0.8	9.2
COCA-COLA CO/THE	37.2	-3.1	-3.5	-8.1	2.6
MONDELEZ	30.9	-3.0	-0.1	8.0	21.2
MCDONALD'S CORP	94.7	-2.5	-0.5	-5.6	7.4
WAL-MART	72.8	-2.1	-0.2	-2.6	6.7
AMERICAN EXPRESS	74.3	-2.1	1.6	-0.4	29.3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9 미국 주요 채권 지표

주요 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국고채 10년	2.65	2.1	-34.9	-9.4
국고채 5년	1.41	0.8	-44.0	-20.4
LIBOR 3M	0.24	-0.5	-1.5	-2.7
EUR-LIBOR 3M	0.16	0.0	0.3	1.8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0 달러 환율 추이

주요 환율	종가	통화가치 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달러 인덱스	80.12	-0.2	-3.0	-5.1
USD/EUR	1.36	0.3	2.6	5.7
JPY/USD	97.48	0.8	2.5	3.8
CNY/USD	6.12	-0.1	-0.1	0.1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 유럽

➢ 경제

유럽 지역의 실물 경기 회복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주 유로존 Markit 9 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는 51.1 을 기록하며 전달보다는 내렸지만 3 개월 연속 예비치를 상회했다. 유로존 복합 PMI 는 52.2 로 전월 52.1 보다 소폭 개선되어 유로존은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월 유로존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0.7% 상승하며 2 개월 연속 상승하며 소비 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해줬다. 한편 10 월 2 일 있었던 통화정책회의에서 ECB 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 개월 연속 0.5%로 동결했고, 점진적인 내수 개선과 통화완화정책에 힘입어 유로존이 느린 속도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을 밝혔다. LTRO 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레타 총리가 재신임에 성공함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전총리 주도의 의원 사퇴로 촉발된 연립정부 붕괴 우려가 완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이태리 정치권 불안은 유로존의 정쟁은 언제든지 시장을 일시적으로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해 줬다.

➢ 주식

지난 주 유럽 지역 증시는 선진 유럽과 재정 위기국의 차별화가 뚜렷했다. 선진 유럽의 경우 미국의 예산안 합의 실패에 따른 연방 정부의 잠정 폐쇄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영국 FTSE100 지수가 0.9% 하락하고, 독일 DAX 지수, 프랑스 CAC40 지수가 각각 0.4%, 0.5% 하락한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 증시는 크게 상승했다. 특히 이탈리아 FTSE MIB 지수가 3.7% 상승하고 그리스 아테네 증시가 3.6% 상승하면서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총리의 재신임 투표 승리에 따른 남유럽 정치적 리스크 완화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이었다. 한편 세금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실비오 베를쿠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는 의회에서도 퇴출당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정치적 리스크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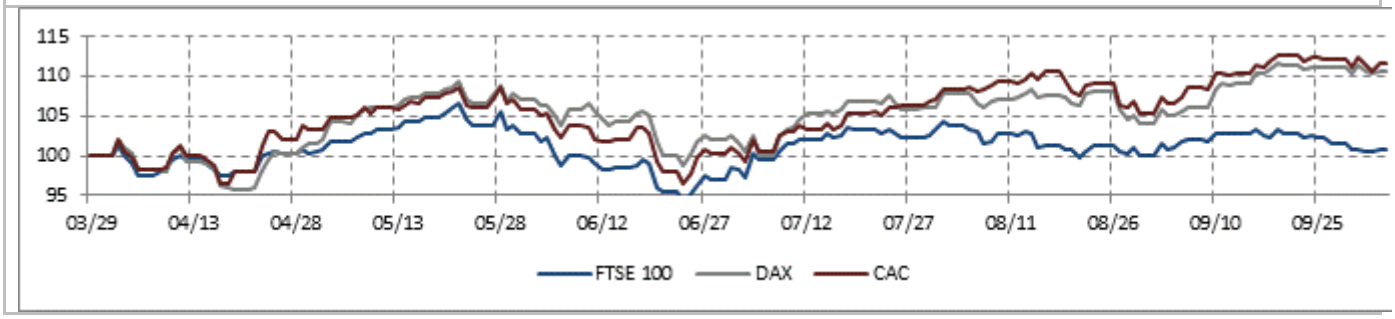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 주 유로존 국채 시장에서도 선진 유럽 지역과 남유럽 지역의 뚜렷한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이탈리아의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와 주변 재정 위기국 국채의 기대 수익률을 매력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유로화가 9 개월래 최고치인 1.36 까지 상승했다. 이는 ECB 의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 재정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Exhibit 11 유럽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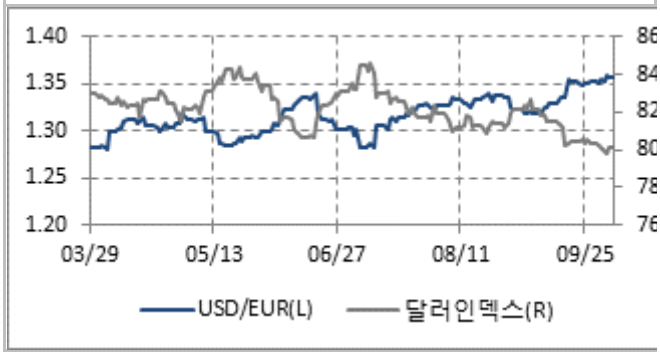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09-30	독일	소매판매 (전월대비)	(%)	0.80	0.50	-0.20	-0.30	0.70
발표	2013-09-30	유로존	CPI 예상 YoY	(%)	1.20	1.10	1.30	-0.10	-0.20
발표	2013-10-01	프랑스	PMI 제조업		49.50	49.80	49.50	0.30	0.30
발표	2013-10-01	독일	PMI 제조업		51.30	51.10	51.10	-0.20	0.00
발표	2013-10-01	유로존	PMI 제조업		51.10	51.10	51.10	0.00	0.00
발표	2013-10-01	영국	PMI 제조업		57.50	56.70	57.10	-0.80	-0.40
발표	2013-10-01	유로존	실업률	(%)	12.10	12.00	12.00	-0.10	0.00
발표	2013-10-02	유로존	ECB 금리 공시	(%)	0.50	0.50	0.50	0.00	0.00
발표	2013-10-03	유로존	PMI Composite		52.10	52.20	52.10	0.10	0.10
발표	2013-10-03	유로존	소매판매 (전월대비)	(%)	0.20	0.70	0.50	0.50	0.20
예정	2013-10-07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8.50		6.50		
예정	2013-10-08	독일	공장수주 전월비	(%)	1.00		-2.70		
예정	2013-10-09	영국	광공업생산 MoM	(%)	0.40		0.00		
예정	2013-10-09	독일	산업생산 SA MoM	(%)	1.00		-1.70		
예정	2013-10-10	프랑스	광공업생산 MoM	(%)	0.60		-0.60		
예정	2013-10-10	유로존	ECB Publishes Monthly Report		0.00	0.00	0.00	0.00	0.00
예정	2013-10-10	영국	영국은행 은행 금리	(%)	0.50		0.50		
예정	2013-10-11	독일	CPI (전년대비)	(%)	1.40		1.40		
예정	2013-10-11	프랑스	경상수지	(십억)			-3.20		

Exhibit 12 유럽 주요 증시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3 유로화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4 주요국 채권 금리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5 유럽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EMU	96.1	0.1	4.7	12.0	13.0
FTSE EUROTOP 100	2,528.6	-0.9	1.7	6.8	8.8
Euro Stoxx 50	2,928.3	0.3	5.6	12.8	11.1
영국 FTSE 100	6,453.9	-0.9	-1.2	1.2	9.4
독일 DAX	8,623.0	-0.4	4.7	10.5	13.3
프랑스 CAC 40	4,164.3	-0.5	3.9	10.9	14.4
이탈리아 FTSE MIB	18,304.2	3.7	8.7	17.8	12.5
스페인 IBEX 35	9,420.9	2.1	10.2	19.7	15.3
포르투갈 PSI 20	6,025.5	0.4	1.3	11.4	6.5
그리스 ASE	1,067.9	3.6	14.9	27.0	17.6
스위스 SPI	7,550.0	-1.2	0.3	2.7	20.0
러시아 RTS	1,440.5	0.5	7.5	13.6	-5.7
터키 ISE 100	76,207.0	1.9	14.2	4.2	-2.6
남아공 TOP40	39,285.2	-1.2	2.3	13.3	12.9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6 유럽 주요 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 bn)	수익률(%)	
				(1 주)	(1 개월)
프랑스	ALCATEL-LUCENT	IT	9.1	7.2	26.1
프랑스	SOCIETE GENERALE	금융	42.3	4.7	14.9
독일	COMMERZBANK AG	금융	14.1	4.7	3.9
독일	DEUTSCHE TELEKOM AG-REG	통신서비스	68.0	4.3	14.9
프랑스	EADS NV	산업재	52.3	3.7	10.3
프랑스	ACCOR SA	경기소비재	9.8	2.9	7.6
독일	THYSSENKRUPP AG	소재	12.7	2.9	15.2
영국	AGGREKO PLC	산업재	6.2	-10.3	-10.2
영국	KAZAKHMYS PLC	소재	2.1	-8.4	-19.1
프랑스	ALSTOM	산업재	10.5	-6.6	-6.7
프랑스	SCHNEIDER ELECTRIC SA	산업재	46.6	-5.5	2.2
영국	SABMILLER PLC	필수소비재	77.6	-4.8	-1.7
영국	KINGFISHER PLC	경기소비재	14.1	-4.8	-6.5
프랑스	MICHELIN (CGDE)	경기소비재	20.2	-4.7	7.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7 유로화 환율 / 주요국 채권 지표

주요 환율/채권	종가(%)	변동률(%, bp)		
		(1 주)	(1 개월)	(3 개월)
USD/EUR	1.36	0.3	2.6	5.7
영국 10년	2.74	3.1	-26.9	25.5
독일 10년	1.84	6.3	-20.1	12.2
프랑스 10년	2.36	2.7	-26.2	6.9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8 남유럽 채권 지표

주요국 채권	종가	변동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이탈리아 10년	4.30	-11.9	-25.1	-12.5
스페인 10년	4.20	-15.6	-40.9	-44.7
포르투갈 10년	6.34	-44.0	-59.0	-67.9
그리스 10년	9.08	-26.4	-126.3	-205.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3. 아시아

➢ 경제

지난 6월말 이후 각종 경기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9월 중국 제조업 HSBC PMI 확정치는 50.2를 기록하여 예상치(51.2)를 하회하였지만 전월치를(50.1) 상회하여 전월에 이어 경기 확장세를 나타냈다. 중국 통계국과 중국물류구매협회(CFLP)가 발표한 9월 제조업 PMI가 51.1를 기록하여 전월치(51)를 소폭 상회하여 석달째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회복세가 다소 미약하지만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기업의 경영여건의 개선 추세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9월 서비스업PMI는 55.4로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여 3분기 경기회복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대기업의 경기 체감지수도 대폭 개선 되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3분기 단칸 제조업 지수가 12를 기록하여 전분기(4)와 예상치(7)를 크게 상회하였다. 비제조업 기업의 경기 체감지수인 단칸 비제조업 지수도 전 분기 12에서 2포인트 오른 14로 개선되었다.

금주에는 중국 9 월 신규 위안화 대출과 무역수지, 일본 기계수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주식

지난주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로 하루만 개장하고 10 월 1 일부터 휴장을 하였다. 월요일 발표된 중국 9 월 PMI(50.2)의 지속적인 경기확장세로 상해종합증시는 0.7% 상승하였다. 일본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및 디폴트 우려, 엔화 강세로 닛케이지수가 전주 대비 5% 하락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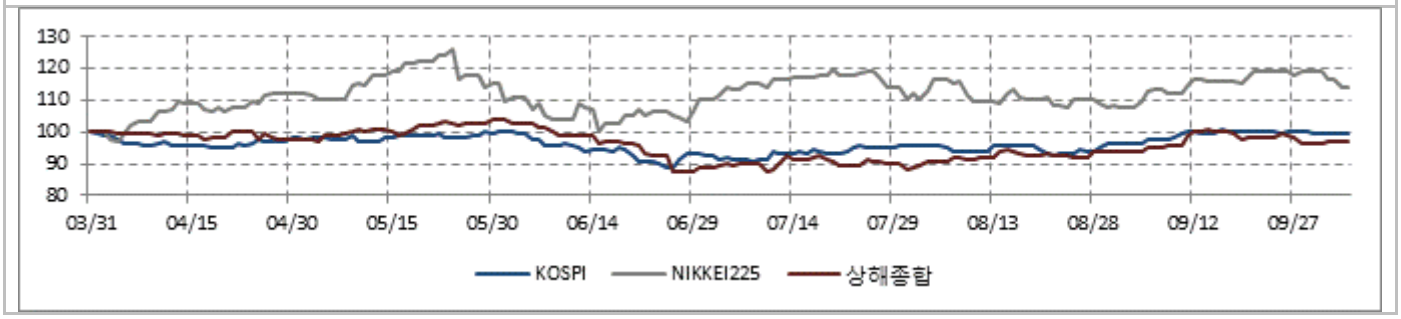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미국 예산안 처리 관련 정부 셧다운,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 미국발 악재로 인하여 엔화가 강세를 보여 97.48 로 마감하였다.

Exhibit 19 주요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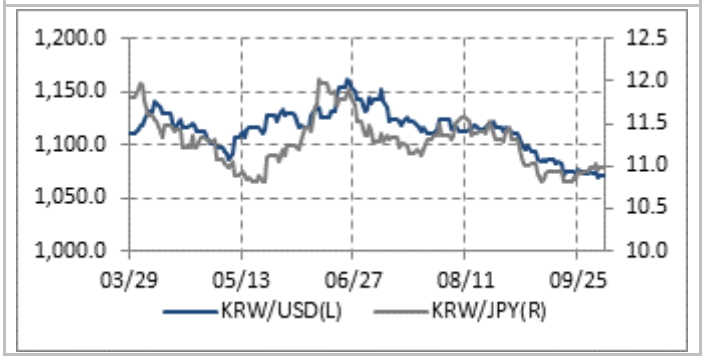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09-30	한국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82.00	77.00		5.00
발표	2013-09-30	한국	광공업생산 YoY	(%)	2.10	3.30	0.90	1.20	2.40
발표	2013-09-30	일본	Markit/JMMA 제조업 PMI			52.50	52.20		0.30
발표	2013-09-30	일본	광공업생산 MoM	(%)	-0.30	-0.70	3.40	-0.40	-4.10
발표	2013-09-30	중국	선행지수			99.86	99.89		-0.03
발표	2013-09-30	중국	HSBC/Markit 제조업 PMI		51.20	50.20	50.10	-1.00	0.10
발표	2013-10-01	한국	CPI (전년대비)	(%)	1.20	0.80	1.30	-0.40	-0.50
발표	2013-10-01	일본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7.00	12.00	4.00	5.00	8.00
발표	2013-10-01	한국	무역수지	($백만)	4,550.00	3,713.00	4,852.00	-837.00	-1,139.00
발표	2013-10-01	한국	HSBC/Markit 제조업 PMI			49.70	47.50		2.20
발표	2013-10-01	중국	제조업 PMI		51.60	51.10	51.00	-0.50	0.10
발표	2013-10-03	중국	비제조업 PMI			55.40	53.90		1.50
발표	2013-10-04	일본	일본은행 정책금리						
예정	2013-10-08	일본	BoP 경상수지	(십억)	548.10		577.30		
예정	2013-10-08	중국	HSBC/Markit 서비스 PMI				52.80		
예정	2013-10-08	일본	파산 YoY	(%)			-15.30		
예정	2013-10-10	일본	기계수주 전월비	(%)	2.50		0.00		
예정	2013-10-10	한국	BoK 7일 Repo 금리	(%)	2.50		2.50		
예정	2013-10-10	일본	소비자기대지수		43.50		43.00		
예정	2013-10-10	중국	신규 위안 대출	(십억)	662.10		711.30		
예정	2013-10-12	중국	무역수지	($십억)	25.15		28.52		

Exhibit 20 아시아주요증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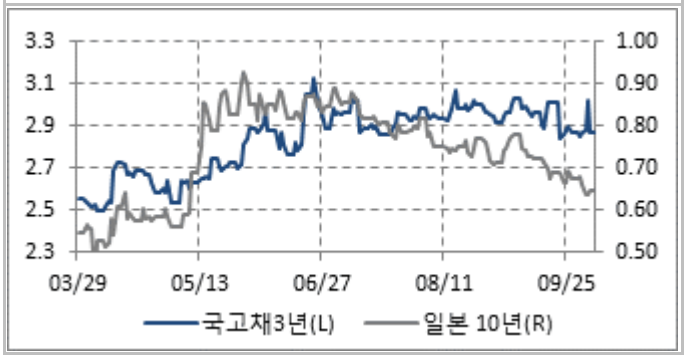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1 원화환율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22 한국국고채 3 년 VS 일본 10 년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3 아시아주요국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sia Pacific	139.1	-1.2	4.4	5.9	7.5
MSCI EM	1,007.9	0.8	6.4	9.8	-4.5
한국 KOSPI	1,997.0	-0.7	2.3	8.9	-0.0
일본 NIKKEI 225	14,024.3	-5.0	-0.3	-2.0	34.9
중국상해종합	2,174.7	0.7	2.5	8.3	-4.2
홍콩항생	23,138.5	-0.3	2.4	11.0	2.1
호주 ASX 200	5,208.0	-1.9	1.3	7.6	12.0
뉴질랜드 NZX 50	4,759.4	-0.5	3.4	6.0	17.0
인도 SENSEX 30	19,916.0	1.0	4.9	2.2	2.5
싱가포르 STI	3,138.1	-2.2	3.2	-1.0	-0.9
태국 SET	1,427.7	0.7	8.7	-0.9	2.6
인도네시아자카르타	4,389.3	-0.8	8.4	-4.6	1.7
필리핀PSEi	6,390.5	0.2	7.2	-1.7	9.9
베트남호치민	497.5	2.2	4.2	2.4	20.2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4 아시아주요종목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bn)	수익률(%) (1 주)	(1 개월)
중국	SHANGHAI PHARMACEUTICALS-A	헬스케어	6.5	14.3	37.8
홍콩	CHINA UNICOM HONG KONG LTD	통신서비스	40.6	9.4	8.5
한국	SK TELECOM	통신서비스	17.4	7.4	6.2
한국	SK HYNIX INC	IT	21.5	6.9	15.3
한국	SAMSUNG C&T CORP	산업재	9.4	6.4	10.4
중국	JIANGSU HENGRUI MEDICINE C-A	헬스케어	8.1	6.3	9.9
홍콩	KUNLUN ENERGY CO LTD	에너지	11.9	5.6	0.9
일본	JFE HOLDINGS INC	소재	15.3	-9.6	0.2
한국	LG UPLUS CORP	통신서비스	4.5	-8.3	-14.4
일본	SHIN-ETSU CHEMICAL CO LTD	소재	25.1	-8.3	-9.2
일본	SHOWA SHELL SEKIYU KK	에너지	4.0	-8.2	-0.1
한국	LG CORP	산업재	10.1	-8.1	-6.3
일본	JX HOLDINGS INC	에너지	12.5	-6.7	-10.1
일본	MIZUHO FINANCIAL GROUP INC	금융	51.8	-6.3	-1.0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5 아시아주요채권지표

주요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한국 국채 5년	3.06	-0.9	-22.8	-17.7
일본 10년	0.65	-3.1	-12.9	-20.8
중국 10년	3.99	-0.4	-6.9	47.6
호주 10년	4.03	16.9	-3.9	21.3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26 달러환율추이

주요환율	종가	통화가치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KRW/USD	1,070.43	0.30	2.63	6.73
JPY/USD	97.48	0.78	2.48	3.82
CNY/USD	6.12	-0.09	-0.09	0.14
AUD/USD	1.06	1.26	3.10	4.07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한국**

전주 한국증시는 미국 재정한도 협상 결렬로 인한 미정부의 잠정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속되었으나, 국내 기관투자자의 매도세와 투자심리 악화로 0.7% 하락하였다.

미정부 잠정폐쇄로 대부분 글로벌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가운데 3 분기 기업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졌다. 주초 자동차 업종의 리콜과 삼성전자 3 분기 영업이익이 10 조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장은 약세를 보였으나 금요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1 조를 발표함에 따라 시장은 낙폭을 줄여 보합세로 마감하였다.

Exhibit 27 증시주변자금현황

(십억원)	Close	1W(△)	1M(△)	3M(△)	6M(△)	YTD(△)
고객예탁금	16,996.8	-470	-684	-2,895	-537	-1,018
국내주식형펀드	87,772	-683	-3,204	-4,121	-3,701	-6,615
신용융자(KSE+KOSDAQ)	4,343	27	-101	-129	-104	430
MMF	74,376	-1,342	5,144	3,895	-4,683	10,706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28 투자주체별매매동향

(누적,KSE+KSQ,십억원)	주간	월간	3 개월	6 개월	YTD
외국인	1,255.0	9,070.4	11,722.6	4,763.7	2,709.8
기관투자가	-696.0	-4,630.7	-4,010.8	1,638.3	4,980.7
(연기금)	137.2	1,221.1	3,389.8	5,610.8	8,248.0
개인	-465.7	-3,747.6	-6,713.8	-4,884.4	-5,598.6
기타	-93.3	-692.1	-998.0	-1,517.6	-2,091.8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29 글로벌증시대비국내증시변동

섹터	주간수익률(%)			투자자매매동향 (5 일누적,십억원)		
	한국	MSCIAC	편차	기관	외국인	개인
전체	-0.6	-0.3	-0.3	-587.3	975.9	-298.4
에너지	-2.2	-0.3	-1.9	7.9	-5.5	2.1
소재	-3.4	-1.2	-2.3	-84.3	-38.9	132.2
산업재	-2.9	-1.1	-1.8	-33.7	25.4	18.0
경기소비재	-2.0	-0.4	-1.6	-223.2	193.8	49.2
필수소비재	-0.1	-1.2	1.1	-10.4	39.6	-27.9
의료	-1.2	0.2	-1.4	-4.6	20.2	-18.6
금융	-0.1	0.0	-0.1	18.7	74.0	-71.3
IT	1.8	0.0	1.8	-155.7	548.3	-366.5
통신서비스	2.4	0.9	1.5	-56.2	86.0	-27.2
유틸리티	-2.4	-0.1	-2.4	-46.0	32.9	11.6

Source:IBES,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0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수종목

주간기관순매수		주간외국인순매수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삼성물산	154.4	삼성전자	424.9
SK하이닉스	49.8	SK하이닉스	215.5
삼성생명	48.0	NAVER	83.3
현대글로비스	35.8	기아차	70.7
삼성전기	32.9	한국타이어	66.0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1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도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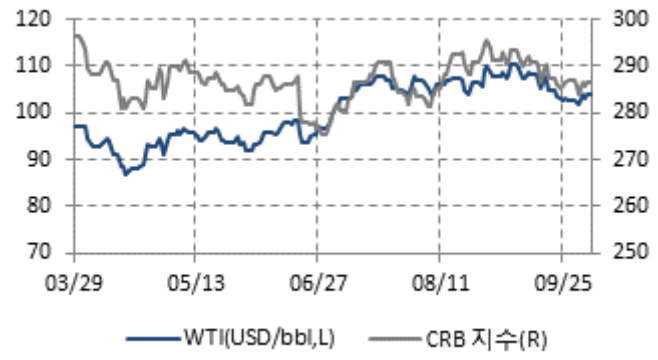
주간기관순매도		주간외국인순매도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LG디스플레이	-150.9	삼성물산	-99.1
기아차	-141.7	LG전자	-56.7
LG전자	-95.3	NHN엔터	-47.8
NAVER	-76.5	삼성SDI	-23.9
LG화학	-58.4	S-Oil	-17.6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4.원자재가격동향

미국 재정협상 불확실성으로 원자재 시장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중동 리스크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원유가격은 소폭 상승하여 WTI 는 103.8 달러로 마감하였다. 한편,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불구하고 금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유럽-중국 경제 회복으로 비철금속은 보합세를 보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 대비 800 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옥수수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BDI 지수는 전주에 이어 1.9%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다.

Exhibit 32 원유(WTI)와 CRB 상품지수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3 금과 LME 니켈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4 옥수수와대두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5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낸드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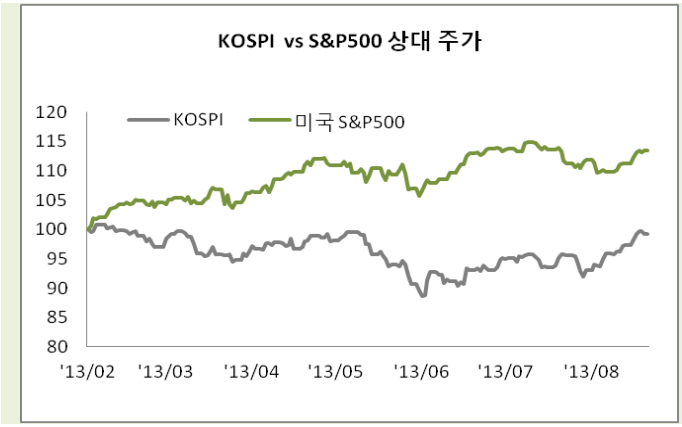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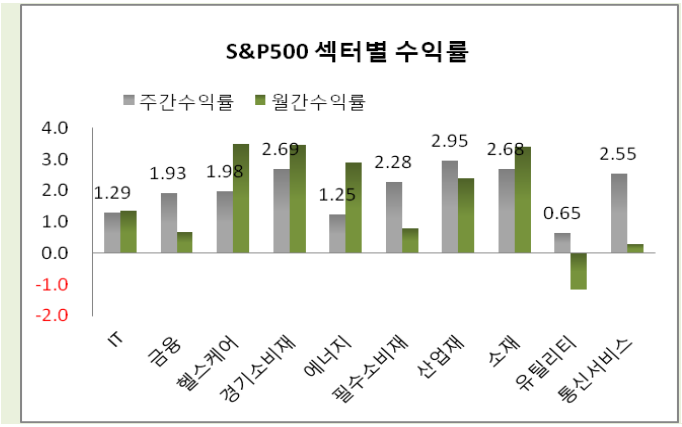
Exhibit 36 주요원자재가격동향

주요원자재	종가 (USD)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WTI(NYMEX)	103.8	0.9	-4.2	0.6	13.1
Brent(ICE)	109.5	0.8	-3.6	3.6	4.0
천연가스(NYMEX)	3.5	-2.3	-4.4	-5.4	-6.4
금(NYMEX)	1,310.1	-2.1	-4.6	7.8	-22.3
은(CME)	21.8	-0.4	-6.5	15.8	-28.5
구리(LME)	7,260.0	-0.5	2.1	6.9	-8.5
아연(LME)	1,872.5	-1.8	0.2	1.7	-10.0
니켈(LME)	14,050.0	0.5	2.4	5.6	-17.6
알루미늄(LME)	1,844.0	0.2	2.6	4.3	-11.0
CRB 상품지수	286.5	-0.2	-1.5	2.0	-2.9
밀(CBOT)	687.0	0.6	7.3	2.5	-16.3
옥수수(CBOT)	443.3	-2.4	-3.9	-9.8	-26.1
대두(CBOT)	1,295.0	-1.9	-5.3	5.4	-0.6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497.7	1.4	4.3	4.5	29.6
NAND 16Gb MLC	3.7	3.7	14.8	22.5	93.1
DDR3 1G 1333MHz	1.6	1.9	38.9	22.7	134.3
Baltic Dry Index	2,084.0	1.9	62.9	89.6	198.1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5.미국섹터/종목뉴스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에너지	엑슨모빌	XOM	-0.7	■ **슐럼버그,** 지난 1 개월 간 슐럼버그의 12 개월 EPS 추정치 변화율은 1.57%로 엑슨모빌 0.31%, 셰브론 0.85%를 크게 앞섬. 주가 수익률 역시 약 8% 상승하며 2.6%, 2.2% 하락한 엑슨모빌, 셰브론과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였음. 2013F PER 는 16.2 배를 기록 중으로 엑슨모빌 11 배, 셰브론 9.6 배 보다 다소 고평가 돼 있어 보이나, 동사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되며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흐름 이어질 것
	셰브론(CVX)	CVX	-3.7	
	슐럼버그(SLB)	SLB	1.3	
소재	몬산토	MON	0.0	■ **몬산토,** 올 4 분기(6~8 월) 순손실 규모가 2 억 4900 만달러로 전년동기의 2 억 2900 만달러보다 증가. 주당 순손실 규모도 47 센트로 확대됐고, 특히 이는 주당 43 센트였던 시장 전망치에도 못미친 것. 매출은 22 억달러로 전년 21 억달러보다 증가.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세계 최대 옥수수 재배국가인 미국에서 사상 최대 생산량이 점쳐지며 국제 옥수수 가격이 42% 급락한데 따른 것. 실적 발표와 함께 농산물 데이터업체인 더 클라이미트코프를 9 억 3 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 ■ **바릭골드**, 도이치뱅크는 몇몇 광산 업체들에 대해 등급을 매겼고, 바릭골드에 대해서만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음. 목표가는 $20 에서 $30 로 상향. 비용 절감, 포트폴리오 단순화와 잉여 현금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
	듀폰	DD	-0.6	
	바릭골드	ABX	-2.7	
산업재	GE	GE	0.0	■ **보잉,** 오는 2032 년까지 20 년간 중남미 항공기 수요가 2,900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남미의 항공시장 성장률은 같은 기간 연평균 7.4%로 세계 평균 5.0%를 상회할 것. 중남미의 20 년간 항공기 수요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 억 달러에 이름.
	UPS	UPS	-0.3	
	보잉	BA	-1.3	
경기소비재	아마존닷컴	AMZN	1.0	■ **아마존닷컴**, 아마존 닷컴의 12 개월 EPS 추정치는 지난 1 개월 간 3.29%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주가 수익률도 7.19% 상승하면서 주가 조정 기간임에도 견조한 추세 보임. 1 개월 기준으로 S&P500 수익률을 3.30%, 3 개월 기준으로 4.86% 앞서고 있으며 50 일선, 200 일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원인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아마존의 수익성,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 아마존의 테블릿 시장 점유율 4.6%로 애플 50.7%, 삼성 18.5%에 비해 뒤지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저렴한 킨들 태블릿을 통해 점유율을 늘려갈 것. 특히 미국의 연휴 기간 동안의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이를 대비한 고용을 늘린 영향도 있음. 다가올 연휴 기간에도 70,000 명을 늘릴 계획으로 2012 년 대비 40% 높은 수준.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으나 풍부한 현금 흐름은 이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킴. 새로운 영역에 대한 투자와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와 이익 성장성도 기대됨
	맥도날드	MCD	-2.5	
	포드	F	0.2	
필수소비재	월마트	WMT	-2.1	■ **월마트,** TheStreet Ratings 는 동사에 대해 '매수'의 투자의견과 A 등급을 제시. 매출 성장률과 ROE, 영업활동으로 비롯된 풍부한 현금 흐름, 순이익 증가 영향. 이러한 점은 높은 부채에 따른 리스크를 상쇄시켜 주는 요인임. 최근 골드만삭스에서도'매수'의 투자의견을 전했음. 컨센서스는 '매수', 목표가 $80.13 제시 ■ **허벌라이프,** 행동주의자 헤지펀드 투자자 빌 애크먼이 지난 해 허벌라이프의 사업모델이 피라미드 사기 행위라며 공매도를 취했으나, 지난 주 숏포지션의 40% 이상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함
	허벌라이프	HLF	1.3	
	뉴스킨	NUS	0.7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JNJ	0.7	■ **머크**, 1) 향후 사업 마케팅과 연구개발(R&D)을 확대하기 위해 8500 명의 임직원을 추가로 감원해 오는 2015 년말까지 한 해 25 억달러를 절감하기로 했음. 전세계 직원수의 20%에 해당하는 수치. 이 같은 인력감원과 비용절감을 통해 당초 제시했던 올해 전체의 주당순이익 예상치를 한 주당 3.45~3.55 달러에서 한 주당 1.58~1.82 달러로 상당 폭 하향조정. 비용조정에 소요될 금액은 올해에만 9 억~11 억 달러 안팎에 달하고, 이 중 가장 큰 몫이 3/4 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음. 2) 항암면역치료제 MK-3475 가 소규모 시험에서 4 분의 1 의 폐암 환자에게 반응을 보였고, 임상실험 결과는 이달 말 세계 폐암학회를 통해 공개될 것
	머크	MRK	0.9	
	악티비스	ACT	1.8	
금융	웰스파고	WFC	-0.7	■ **뱅크오브아메리카**, 1) 지난 1 개월 간 웰스파고, JP 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중 뱅크오브아메리카의 12 개월 EPS 추정치 변화율이 1.61% 상승하며 상향 조정 폭이 가장 컸음. 웰스파고는 0.25%, JP 모건은 1.4% 하락했음. 반면 뱅크오브아메키라의 주가는 2.23% 하락하며 0.13% 상승한 JP 모건에 비해 부진했음.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JP 모건이 금융 3 사 중 가장 매력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자사의 메릴린치 앤 코퍼레이션(Merrill Lynch & Co., Inc.) 계열사의 뱅크오브아메리카코퍼레이션(Bank of America Corp.)으로의 합병작업을 1 일 완료. ■ **JP 모건,** 제이미다이먼 JP 모건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CEO 겸 회장이 JP 모건 금융부문 회장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음. 존슨앤존슨 회장 겸 CEO 이자 JP 모건 이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음.
	JP모건	JPM	0.8	
	뱅크오브아메리카	BAC	1.1	
IT	애플	AAPL	0.1	■ **마이크로소프트 VS 애플,** 지난 1개월 간 마이크로소프트의 12개월 EPS 추정치 변화율 0.86% 하락한 반면 주가는 무려 8.54% 상승했음. 반면 애플의 12개월 EPS 추정치 변화율은 2.29% 상승한 반면 주가는 3.06% 하락했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3개 증권사가 '매도', 22개 증권사가 '중립', 13개 증권사가 '매수'의 의견을 제시. 컨센서스는 '중립', 목표가는 $33.51로 제시.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 시작. 동사는 지난해 기업공개(IPO) 직전에 사진공유 프로그램인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바 있음. 이는 두 달 이내에 시작될 전망. 지난 1분기 30%에서 2분기 41%로 매출 비중이 높아진 모바일 광고 매출의 상승 기대. * 참고로 트위터가 11월을 바라보며 신규 주식 공개(IPO)에서 10억 달러 조달 목표로 준비 중
	야후	YHOO	4.0	
	페이스북	FB	-0.4	
통신서비스	AT&T	T	-0.7	■ **T 모바일 US,** 지난 주 3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대형 통신사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 T모바일에서 지난 9월 아이폰 판매를 시작했고, AT&T와 버라이즌컴즈와 달리 고객들에게 2년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 방면으로 차별화 전략을 추구했고, 아이폰 판매를 통한 고객 확대, 매출 증가, 성장성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 **통신서비스 섹터,** 지난 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자 유틸리티와 통신서비스와 같이 배당 수익률 매력이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음.
	버라이즌컴즈	VZ	0.2	
	T 모바일 US	TMUS	1.2	
유틸리티	듀크에너지	DUK	-0.7	■ **듀크에너지,** 유틸리티 대형주 3개 종목의 펀더멘털, 주가 수익률이 부진한 가운데 듀크에너지가 3사 중 가장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음. 지난 1개월 간 듀크에너지의 12개월 EPS 추정치 변화율은 0.45% 상향 조정되면서 서던의 0.32%, 엑셀론의 마이너스 0.99%를 상회함. 이와 함께 주가 수익률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음. 듀크 에너지의 1개월 수익률이 2.54%였던 반면 서던과 엑셀론은 각각 마이너스 0.81%, 마이너스 3.06% 기록
	서던	SO	-1.4	
	엑셀론	EXC	-1.7	

Any Comment or News

✓'세계 베스트 브랜드 2013(Best Global Brands 2013)' 발표에서 1위는 애플로 13년간 1위를 차지했던 코카콜라(Coca-Cola)를 제쳤음. 2000년 랭킹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위가 바뀌었으며, 올해에는 IT 브랜드가 다수가 랭킹에 포함되었음. 2위는 구글이 차지했고 3위는 코카콜라, 이후 순위는 IBM, MS, GE, 맥도날드, 삼성, 인텔, 도요타 순임. 상위 10개 브랜드 중 브랜드 평가액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9위 인텔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구글로 34% 증가, 애플 28%, 삼성 20%, 도요타 17% 등도 2자릿수 상승률 기록 성장100위 내 기업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페이스북(52위)으로 43% 증가. 증가율이 높은 상위 5브랜드로는 페이스북, 구글, 애플 외 19위 아마존 27%, 패션 브랜드인 프라다(Prada) 30% 증가(72위)가 있음

6.주간한국/미국기업실적발표일정

Exhibit 37 주간 한국/미국 기업실적 발표 일정

일자	기업명	Ticker	EPS(원, USD)
2013-10-08	미)Wolverine World Wide Inc	WWW US	1.024
2013-10-08	미)Alcoa Inc	AA US	0.055
2013-10-08	미)Yum! Brands Inc	YUM US	0.924
2013-10-09	미)Family Dollar Stores Inc	FDO US	0.836
2013-10-09	미)Costco Wholesale Corp	COST US	1.462
2013-10-09	미)Fastenal Co	FAST US	0.41
2013-10-10	미)Lindsay Corp	LNN US	0.907
2013-10-10	미)Micron Technology Inc	MU US	0.233
2013-10-10	미)Safeway Inc	SWY US	0.161
2013-10-10	미)GenCorp Inc	GY US	0.12
2013-10-10	미)Progressive Corp/The	PGR US	0.361
2013-10-10	한)삼광글라스	005090 KS	720.39
2013-10-10	한)로엔	016170 KS	
2013-10-10	한)코텍	052330 KS	
2013-10-10	한)디스플레이텍	066670 KS	
2013-10-10	한)네오팜	092730 KS	
2013-10-10	한)테스	095610 KS	
2013-10-11	미)JPMorgan Chase & Co	JPM US	1.329
2013-10-11	미)Wells Fargo & Co	WFC US	0.972
2013-10-11	미)Chimera Investment Corp	CIM US	0.108
2013-10-11	한)대한전선	001440 KS	

Source:IBES,FnGuide,리딩투자증권

Strategist 김재호 CFA
(02)2009-7197
kimjh1@leading.co.kr

Quant Analyst 정정원
(02)2009-7068
jwjung@leading.co.kr

미국 담당 (R. A) : 박지미
(02)2009-7059
jmpark1@leading.co.kr

중국 담당 (R. A) : 최미나
(02)2009-7176
mncui@leading.co.kr

*©.2013**LeadingInvestment&SecuritiesCo**.Allrightsreserved*